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청문회 ‘보고서 채택’ 기싸움

후보자 검증 파행 속 마무리
국힘 “강선우·이진숙 사퇴”
민주, 국정운영 정상화 맞붙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한 주간 진행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여야 간 고성과 막말 등 파행
으로 얼룩진 채 막을 내렸다.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세청장
후보자를 검증한 이번 청문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엄호, 무기력하
다는 평가를 받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한방 없는 검증으로 정쟁의 장으로 퇴
색했다는 비판이다.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여야는 이제
여야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주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
다. 현재까지 배경운 과기정통부, 정성
호 법무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조현 외
교부,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
됐다.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와 관
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대체로 소멸
됐으며 자질도 충분히 검증됐다는 입
장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내각 구성으로 이
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
해서라도 청문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
되 경우에 따라 상임위별 단독 표결로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여야
간 정면 대결을 펼친 인사 청문 슈퍼위
크 기간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동반 상승한 것도 민주당의 청문 정국
대응 기조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구
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
부 내각이 빨리 출범할 수 있게 인사청
문경과보고서를 함께 채택하길 촉구하
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일부 장
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만 협조한
것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용
발목잡기로 인사청문회를 이용하는 것
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부·이진

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를 이
어갔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지명 철회를 촉
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천여 단체와 진보
진영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두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으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
는 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병역 이력도 뚜렷하지 못하고,
한미일 연합훈련 일정을 공개하는 등 안
보 감수성이 부족하다” (안규백 국방
부), “전과 5범에 민노총 대변인 행보를
보인다” (김영훈 고용부), “국회 사무총
장 시절에 스스로를 훈장 수훈자로 추
전했다” (권오을 보훈부), “안보 개념을
허물고 통일 의지를 꺾어쳤다” (정동영
통일부) 등의 이유로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자격 후보자 지명 철회를 즉시 선언
하고, 무너진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
해야 한다”며 “정권 코드가 아니라 국
민의 기준이 인사의 출발점이어야 한
다”고 지적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광주 진로진학 박람회서 고민 나눠요”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 진로진학 박람회’를 찾은 학생, 학부모 등이 각 대학 부스에서 진로상담을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진호건 도의원 “교육시설 건립, 안전·효율성 강화”

도교육청 신기술 활용 조례발의

전남지역 교육시설 건립사업에 건설
신기술 활용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만들
어진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
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
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관 건설공사
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신기술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
도적 기반을 다지고, 기술 혁신을 통해
교육시설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신기술 생
애주기비용 평가서 제출 근거 마련 △
공사 현장 또는 보고서에 신기술 정보
를 명시하는 신기술 실명제 도입 등을
명시했다.

특히 위원회는 신기술 적용이 설계
나 시공 단계에서 적절한지를 심의하
고, 발주청이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것을 골자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
신기술 활용의
타당성과 경제성
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건설신
기술이 합리적으로 적용된다면 예산의
효율성 증대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의 안전까지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광주 방문의 해’ 국내외 관광객 발길 잡았다

5월 677만·6월 559만명
G-페스타·오월광주 전인
하반기 미식주간 등 다채

도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광주시가
중점 추진중인 ‘2025 광주방문의 해’
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20일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
해 6월 기준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
객은 559만여명으로, 전년 동월 500만
여명 보다 10.7%(54만여명) 증가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했다. 5·18전야제 등 풍성한 오월 기념
행사가 마련됐던 지난 5월에도 외국인
관광객은 677만여명으로 전년 동월
569만여명 대비 19%(108만여명) 증가
했다.

2025년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11개
의 축제와 행사를 연계한 ‘G-페스타 봄
시즌’ 운영이 관광객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G-페스타 봄 시즌의 대표행사인 ‘오
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는 △민주평

화대행진 △시민참여 난장 △오월강연
대회 △광주인권상 시상식 등을 진행,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일대가 축제의
장이 됐다.

5·18전야제에는 민주평화대행진 참
가자 1만5,000여명을 포함해 총 5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 세대를 아
우르는 민주주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여름 대표 축제인 스트릿컬처페스타
는 거리문화의 진수를 선보이며 연령과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약
1만5,000명이 참여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여행상품과 편의 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었다.

민주·문학 테마를 접목한 ‘소년의
길’과 스포츠 관광 수요에 맞춘 ‘야구
광트립’, 광주와 전남을 잇는 협력 콘텐
츠인 ‘선 넘는 여행’ 등 지역 특성을 살
린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의 선택지를 넓
혔다.

철도 연계 관광상품 ‘레일텔’과 ‘내
일로’, 숙박 할인을 제공하는 ‘숙박페
스타’는 체류형 여행 수요를 이끌어냈
다. 5·18사적지를 연결하는 관광DRT

‘소년버스’ 운행, 도보해설 관광코스
신설, 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으로 관광
인프라 질도 높였다.

하반기에도 광주의 매력을 선보일 축
제와 이벤트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9·10월 중에는 G-페스타 가을 시즌이
열리고 10월에는 호남권 공동으로 ‘호
남 관광문화 주간’이 펼쳐진다. 광주·
전남·전북 3개 시도가 참여해 대표 축
제·광역 관광상품·공동 홍보관 등을 운
영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역 협력
모델이 구현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에는 맛의 도시 광주의 정
체성을 담은 ‘광주 미식주간’도 운영된
다. 할인 이벤트, 미식 플라마켓, 테마
형 미식투어 상품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미식 콘텐츠
를 도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밖에 광주2025세계양궁선수권대
회, 2025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도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람이 찾아오
는 것은 광주가 더욱 커지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광주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정희 도의원 “전남도 AI 중심 혁신전략 재정립”

디지털전환 촉구 도정질문
윤리기준·민관협력 등 주문

전남도 정책·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AI 중심의 미래 혁신전략이 미흡하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 김
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지난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
문에서 정부의 ‘K-AI이니셔티브’와
‘AI기본사회’ 정책, ‘전남도 2023~
2027정보화기본계획’ 분석을 통해 전
남도의 디지털 전환 미비점 등을 지적
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전남도의 정보화
기본계획은 5대 전략, 20대 과제가 명



확히 설계돼 있
으나, 2025년 시행
계획은 연속성과
통합성 없이 단년
도 과제 나열에
그치는 등 전략과
미래지향성이 뚜
렷하지 않다”며 “특히 AI·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 포용, 미래형 기술 도입 등
주요사안이 여전히 부서별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26년 시행되는
‘AI신뢰법’에 맞춰 AI 윤리, 고위험
AI 선별, 영향평가, 이용자 권리 등 핵심
원칙이 전남 정책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을 중심
에 둔 윤리·보호 기준 강화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구체적 대응책 마련이 시
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생성형AI, 스마트
팜, AR 등 미래형 첨단기술의 실질적
도입과 민관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전
략도 미흡하다”며 “전문가, 민간기업,
도민이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비
롯해 성과측정 및 환류 시스템, 중앙부
처 공모사업 대응 전략 등에서도 체계적
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AI의 시대에는 기
술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권리보장, 디
지탈 포용, 사회적 신뢰가 무엇보다 중
시돼야 한다”며 “전남이 사람 중심의
미래 선도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
록 실효성 있는 전략 재정립이 필요하
다”고 촉구했다. 정근산 기자





자연정수기간

40

YEARS

자연에서 40년을 거르고 걸러
신선하고 건강해진 백산수

좋은 물은 오래 걸립니다

천지차이
백산수